

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

<안드레의 신앙>

9/16(주일) 설교 내용

요한복음 6:1-13

1. 내 인생의 놓인 문제 앞에 나는 빌립처럼 반응하고 있나요?
아니면 안드레처럼 반응하고 있나요? 안드레처럼 반응하기 위해
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?

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.

문제가 찾아 올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

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. 광야를 보았고 돈이 없는 것을 보았고 떡을
구할 것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.

그러나 안드레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

같은 상황,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.

이 1번 질문은,

부정적인 반응으로 낙제생이 되기 보다 긍정적인 반응과 문제 가운데 계시는 예
수님을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권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

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를 경험해 보았다면 함께 나눠
주시기 바랍니다. 또는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을 때 해결되었
던 경험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.

빌립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두었습니다.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
보려고 했던 것입니다.

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은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
었습니다.

각자의 삶의 경험담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예수님 앞에, 그리고 목원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놓인 문제를 솔직
하게 내려놓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.

목장은 한 가족입니다.

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예수님은 분명 목장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.

그렇기에 서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제목으로 놓
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목원들의 문제를 해결 해 주실 것입
니다.

목자분들이 먼저 솔직하게 현재 자신에게 당면해 있는 삶의 문제들을 오픈해
서 이야기 해 보시면 어떨까요?